

이홍재의 세상만사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삶의 윤희유'라고들 하던데 그동안 늘 컵전에 즐기고 말았습니다. 대신 '길 떠나면 고생'이요 방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방콕'만이 재테크라고 굳게 믿고 싶었던 게지요. 돌아보니 참 여유 없는 삶이었네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기는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의 나폴리'로 불렸을 만큼 아름다운 곳 통영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통영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나폴리 호텔' '나폴리 마켓' 등 유난히 나폴리가 붙은 상호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통영(統營)이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수군통제사가 머물던 통제영(統制營)이 있던 자리라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1995년 시·군 통합할 때 통영군은 충무시와 합쳐져 통영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충무김밥'이 유명하지요. 통영의 한 음식점에서 2인분을 시켰습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식물원인 외도로 건너가는 배를 기다리며 승용차 안에서 맛을 보았습니다. 포장을 뜯고 살펴보니

맨밥에 김을 돌돌 말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니 이 맛이란 김밥이 왜 그리도 유명하다는 거지? 사연을 알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1930년대 부산과 여수 사이 여객선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중간 정점이 충무였답니다. 충무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다는 충무김밥. 상하기 쉽기 때문에 소를 넣지 않는 대신 따로 반찬을 싸 주었다는 겁니다. 주꾸미 무침이나 어묵 등이 반찬으로 나오니까. 통영은 옛날부터 배가 많이 오가던 곳이라, 까니도 제 때 못 챙겨 먹고 먼바다로 나가는 뱃사람들에게 주려고 만들어진 음식이 바로 충무김밥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인들

통영에서는 충무김밥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국내 최장 케이볼카, 그리고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도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인 1932년에 완공된 것이라 해서 깜짝 놀랐네요. 요즘엔 동리랑(동쪽의 비랑, 피랑은 비랑의 사투리) 벽화마을이 뜨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요.

통영은 술한 예술인들을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행복'을 노래한 청마 유치환과 '꽃'을 노래한 김춘수 시인, 걸출한 대작 '토지'를 남긴 소설가 박경리,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한국의 피

통영에서 광주를 생각하다

카소'로 불리는 화가 전혁립 등이 그들입니다. '불속에 구워 내도 얼음 같이 하얀 살결'이라며 백자(白磁)를 노래했던 시조시인 김상옥도 이곳 출신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한때 막연히 소설을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 하지만 토지를 읽고 난 이후엔 감히 그런 엄두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박경리 기념관 입구에 걸린 선생의 대형 사진 앞에서 존경의 염(念)을 가지고 '인증샷'을 한 적 있었습니다. 마치 생전의 선생을 만난 듯 가슴이 설었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니 선생이 쓰신 글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가슴을 적십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밀도 짙은/ 연민이요" "불쌍한 것에 대해, 허덕이고 못 막는 것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이 가장 송고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기념관에는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 담긴 유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선생은 어린 시절을 통영에서 보냈는데 필명이 '박경리'라는 것을 이번 에야 처음 알았네요. 그럼 본명이 뭐냐고요? 다소 촌스러운 듯싶기도 한 '금이'(今伊)라네요. 하하.

통영항이 바라다보이는 바닷가 한편에는 '꽃의 시인' 김춘수 유품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교과서에 도 나와 너무나도 유명한 시 아닙니까. 전시관에서는 선생의 육필 원고를 비롯해 생전에 사용했

던 침대와 옷가지 그리고 평소 즐겨 했던 수십 개의 나비넥타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보내는 애뜻한 사연의 편지와 엽서들이 눈길을 끕니다. 유럽 여행 중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에게 걱정의 마음을 담아 '어찌된 일이지?'라고 묻는 엽서를 보니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문학관 하나 없는 황량한 도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구나/...../ 설명 이것이야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 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청마 유치환 선생이 이영도 시인에게 보낸 저 유명한 연시(戀詩) '행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가기에 유부남과 과부였던 두 분의 러브스토리를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마가 60살이 되던 1967년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동안 이영도에게 띄운 연시가 무려 5000여 통이나 됐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마문학관에서는 이영도 시인의 절었을 때 모습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망일봉 기슭에 자리한 청마문학관은 본래 태평동에 자리했던 청마의 생가를 옮겨와 복원한 곳이라 합니다. 청마의 부친이 운영했던 '유악국' 간판도 보이는

군요. 문학관 한편에는 유치환이 윤이상과 김춘수 등에게 받은 편지도 전시돼 있어 이들 사이의 예술적·정신적 교류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주마간산(走馬看山),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통영에는 박경리 기념관·김춘수 유품전시관·청마문학관 등이 있습니다. 목포에는 박화성·차범석·김우진·김현 등의 목포문학관이 있습니다. 보성에는 조정래의 태백산맥문학관이, 곡성에는 조태일 시문학관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문학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 문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설가 현재훈과 시인으로 다형 김현승·용아 박용철, 그리고 '봄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잊었을 때도 온다' 했던 이상부, 모두 광주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예술의 도시라는 광주에는 왜 문학관 하나 없는 걸까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관심이 없어서일 겁니다.

광주의 문학관 건립을 문학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일을 오래 끌다 보면 나중엔 자료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예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장현 광주시장께서 재임 중 남길 수 있는 업적으로 광주문학관 건립만 한 게 있을까요? 통영만큼은 못 되더라도 광주에도 그럴싸한 문학관이 생겨 전국의 관광객들이 한번쯤 들러 가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국방부, 현역 판정 기준 강화

신장 175cm 기준 체중 52.1kg 이상·체중 101.1kg 미만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1만4000명, 보충역 전환될 듯

키 175cm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즉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심각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된다.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에 따라 키 175cm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은 체중 49.0kg 미만, 107.2kg 이상이면 4급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kg 미만, 101.1kg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뀐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은 전체 피부의 30% 이상으로 잡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5% 이상으로 변경한다.

백반증의 경우도 지금은 안면부의 50%를 넘어야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 이상만 돼도 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바뀌고 청력장애의 4급 판정 기준도 56dB 이상에서 41dB 이상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만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배추야 잘 자라라" 27일 오후 광주시 남구 김치타운 야외텃밭에서 열린 '배추모종심기' 행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가운데)이 유치원생들과 모종을 심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

완도·고흥 해역 적조 경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완도와 고흥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를 경보로 대체 발령했다"고 밝혔다. 적조특보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출현량이 1㎎당 10개체 이상일 때 '출현주의보', 100개체 이상은 '주의보', 1000개체 이상은 '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이 해역은 지난 17일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현재 적조 밀도는 1㎎당 50~4600개 개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완도군 금일도와 생일도 주변 해역은 복서풍의 영향으로 고밀도 적조가 나타나고 있다.

완도·고흥 해역은 향후 일조량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적조생물이 성장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고밀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과학원은 "적조 경보가 발령된 해역에서는 고밀도 적조 발생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공급 장치를 가동하는 한편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사육수조 내 용존산소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돌산 앞바다에도 지난 13일부터 적조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전남도와 여수시, 어민 등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보건소 내달 20일간 결핵 예방백신 무료 접종 중단

광주시는 27일 "다음 달 초부터 20여 일간 광주지역 보건소의 결핵 예방백신 BCG 접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BCG백신은 주사형인 피내용과 도장형인 경피용 두 종류가 있으며, 제한하는 종류는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피내용에 국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무료로.

접종 제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피내용 백신이 부족해 덴마크 제조사 사정에 따라 10월이후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로빌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71)	광주교육대학교(12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 (고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02(월)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연간 18: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3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1,2,3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260-3582~4 ·지도교수(선생명):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선생명):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